

# 머리말

## Preface

---

2005년도 황우석 전 교수의 출판윤리 위반 시안은 국내외 출판윤리 분야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출판윤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과거에는 무심히 지나가던 중복출판이 새 화제가 되었다. 2005년 이후 교원 임용, 승진 등에 활용하는 업적평가에서 중복출판이 계속 발견되면서 출판윤리에 관한 각종 질의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에서 접수하여 답변하는 횟수가 늘기 시작하였다. 의편협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2006년 출판윤리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편집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2008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이 해부터 시행한 편집인아카데미를 통하여 출판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9년에는 의학 학술단체의 편집인 대상으로 ‘의학논문 연구출판윤리 심포지엄’을 진행하였다. 최근 많은 학회들이 편집위원 워크숍 등을 통하여 출판윤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의편협이 각 학회로 부터 매년 십여 건의 출판윤리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은 중복출판에 대한 내용이다. 즉 많은 편집인이 중복출판을 판단하는 기준을 편집 현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의학논문 중복출판 사례집을 구상하였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을 통하여 많은 편집인, 원고편집인, 전문가심사자, 투고자, 연구자가 도움받기 바란다.

2011년 7월 1일

대표저자 함창국